

송양섭,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

효종의 정국운영과 북벌구상

- 국내정치적 배경: 정국운영의 주도권과 북벌
 - 효종의 강력한 으지
 - 당시 정국운영을 주도하고 있던 친청세력의 약화를 도모
 - 북벌을 표방하면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력의 규합: 훈신세력이라도 반청세력 등용; 예, 이시방, 원두표 이완, 무사세력의 대거 등용
- 청 내부 요인에 대한 판단
 - 중원 점령 이후 청이 군사적 문제보다 내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
 - 한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반감을 북벌에 이용할 전략적 구상(삼변의 난): 청이 중국 왕조로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한족과의 갈등과 분쟁을 북벌에 활용
 - 대조선 강압책(섭정왕 도르곤)에서 청 세조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조선정책으로 전환,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이 완화되면서 군비정책에 호기로 작용
 - 1차적으로 요동에서 심양에 걸쳐 있는 만주지역의 점령을 공격의 목표로 설정
 - 만주지역에 끌려간 조선인 피로인의 내용도 계산

군비증강책의 추진

- 중앙과 지방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비마련을 추진
- 수어청의 개혁
 - 남한산성: 광주, 양주, 죽산, 원주의 4영의 군사 관할, 화포 중심의 군사력 보완, 군량 확보의 조치
- 어영청의 개혁: 어영대장 이완의 주도
 - 훈련도감이 임원편제와 같은 규모로 확대 개편
 - 어영군위 증치, 番次制度의 개혁
 - 군사에 대한 대우개선을 병행하여 질적인 향상의 도모
 - 호조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재정운용을 허용
 - 별마대 창설: 제주공마의 수를 늘려 官馬의 확보에 주력
 - 대포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別破陳이라는 특수부대 창설
- 금군의 강화
 - 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군의 인원을 600명에서 1,000명으로 확충

○ 훈련도감의 개혁

- 馬軍 1哨, 보병 10哨 증액 추진

○ 지방군에 대한 강화책 추진

- 영장제의 실시: 삼남에 영장을 파견하여 군무를 전담
- 삼남이외 지역에는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영장제 실시
- 강화도에 대한 군비 확충: 鎭堡 설치에 주력, 숙종초까지 파악되는 강화의 진보 14개 중 8개소가 효종대에 설치

○ 군사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비추쇄작업의 추진

- 무리한 추쇄의 후유증: 북벌사업 포기 이후 도망, 물고자의 증가로 인한 인징, 죽징의 폐단 유발

○ 공납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동법도 군수재정 확보에 일정하게 기여

- 기존에 무기 제조를 위하여 수취하였던 삼남의 各邑月課銃藥丸價를 대동미에 포함

○ 군비확충에 대한 평가

- 공격적 전력 강화보다 수세적·방어적 군비측면이 강하다는 점
- 군비증강책은 효종 개인의 대청적개심에 의한 북벌 의지와 정국운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왕권강화이 두가지 측면의 복합적인 성격

북벌론의 쇠퇴와 이후의 추이

○ 효종 5·6년 전후로 한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

- 민의 반발과 재정의 어려움
- 흉년과 민생의 피폐로 인한 북벌추진의 차질로 인해 독선적인 정국운영

○ 반청의식이 투철하고 사료로부터 증망을 받고 있는 산림세력의 증용

- 송시열 등의 존주사상: 춘추학적 문화관념과 전통적인 조공의식에 기반, 청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의식의 표현, 관념에 치우쳐 구체적인 대책 결여, 관념적 대응명분론서의 존명 배청사상은 명에 대한 회고적 감정의 피력, 문화자존의식, 반청적 북벌대의론과 결합된 사고

○ 삼번의 난에 따른 북벌론의 재현

- 대만의 정금의 조선침입설, 윤희의 북벌론, 유생들의 북벌 지지 상소